

본문: 마태복음 20 장 1-16 절

제목: 불편한 포도원

1.

예전에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되면 일할 사람을 구하려고 이 집 저 집 찾아가 물어 봐야 했습니다. 누구네 집이 모 심는다고 하면 동네에서 일 좀 하는 사람들이 일을 도와주죠. 그리고 도움을 받은 농부는 일을 도와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집 일을 도우며 자신이 진 빚을 갚습니다. 이것을 품앗이라고 부르죠. 우리 조상들은 품앗이로 서로서로 도와가며 일손이 모자란 것을 메꿨습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 모내기를 할 때 열 명 정도 되는 어른들이 큰 논에서 허리를 숙이고 모를 심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 붙지 않으면 1.5 에이커 넘는 논에 모를 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야 뭐 모내기 할 때 줄만 잡는 역할이었지만 그 넓은 논이 몇 시간 만에 푸른 벼 모종으로 심겨지는 것을 보면 신기했습니다. 품앗이는 노동으로 갚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한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보상은 맛있는 새참과 막걸리였습니다. 아침과 점심 중간에 10 시쯤 되면 주인 집 아주머니는 큰 대야나 바구니 한 가득 맛있는 밥과 반찬을 머리에 이고 옵니다. 그리고 논두렁에 비닐 포장을 깔고 다같이 참을 먹습니다. 일꾼들은 '카~' 소리를 연발하며 막걸리를 들이킵니다. 주인이 일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호의가 바로 맛있는 새참이었던 거죠.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에는 품앗이라는 것이 없었나 봅니다. 포도원에 포도 수확철이 되어 일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찾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몇 사람을 만나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니 적당한 가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 9 시가 되자 주인은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시장으로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고라'(ἀγορά, agora)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고라는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넓은 광장였습니다. 이곳에서 장도 열리고 정치적인 모임도 가졌습니다. 9 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아침 9 시이구요. 어떤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 그대로 3 시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간인 6 시를 0 시로 여겼고 하루의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을 지금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6 시간을 더해줘야 합니다. 아무튼 주인은 오전 9 시에 아고라에

나가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주인은 12 시와 오후 3 시에도 나가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죠. 곧 있으면 해가 지는 오후 5 시가 되어서 주인은 또 아고라로 나갑니다. 주인이 서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그 일꾼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력시장 (labor market)이란 곳이 있었죠. 아침 5 시 30 분경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골라서 건설현장으로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하루 하루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죠. 그런데 어떤 날은 일이 없어서 헛탕치고 집에 그냥 돌아가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정말 허무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가장이라도 된다면 그런 상황이 정말 난감하죠. 아마도 5 시에 아고라에서 있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런 기분으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시간 후면 해가 지는데 그 시간에 그들이 일을 찾고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그들에게 일을 시킨단 말입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고용했고 저녁까지 몇 시간 안 됐지만 일할 기회를 준 것이죠.

본문에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계산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시켜서 맨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오후 5 시에 온 사람부터 아침 일찍 온 사람 순서로 품삯을 치르게 합니다. 청지기는 오후 5 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맨 처음 온 사람들은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훨씬 많이 했으니 훨씬 많은 돈을 받겠지?’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주어진 겁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 이 사람들은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러자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이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주는 것은 내 뜻이요. 당신 것이나 챙겨서 돌아가시오.”

2.

오늘 날의 상식으로도 주인의 이런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먼저 본문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비유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늘 나라는 마치 포도원 주인의 사정과 같다”고 하면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사정을 이해할 때 하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암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절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라는 문장은 이 비유를 한 마디로 정리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에 꼴찌된 자들과 첫째된 자들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첫째 된 이들’을 헬라어로 ‘프로토이 Protoi’(those who are ahead)라 하고 있고요 ‘꼴찌 된 이들’은 ‘에스카토이 Escatoi’(those who are last)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이와 에스카토이가 20 장의 바로 앞장 마지막 절인 19 장 30 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첫째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v. 30).” Protoi 가 Escatoi 가 되고, Escatoi 가 Protoi 가 된다는 순서를 보십시오. 본문 20 장 16 절은 이 순서가 반대로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바꿔주는 문학장치를 통해 이 비유의 주제인 ‘순서의 뒤바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문학적인 장치들을 통해 주제를 나타내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앞 이야기들이 본문과 잇대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18 장에는 하늘 나라에서 누가 큰지에 관한 주제가 먼저 등장합니다. 18 장 10 절에서는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는데 본문과 이어지는 주제라 할 수 있죠. 19 장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는 왜 올라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때 예수님의 대적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바리새파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 청년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재산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을 언급합니다. 그 길에서 세배대의 어머니가 자신들의 아들들을 잘 봐 달라고 청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으뜸이(프로토이) 되는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뒤 이은 이야기도 첫째 자리와 큰 자라는 모티브를 사용하여 본문과 일치한 주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조건 그리고 행실로 하늘 나라에 가장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첫째 된 자들이란 뜻의 ‘프로토이’들은 사회 계급 상으로, 지위로, 권력으로, 경제적으로 모두 앞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것을 이해한다면 프로토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프로토이들은 자신들이 하늘 나라의 상석에 앉아야만 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뒤집어 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토이와 에스카토이는 언제나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뒤집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3.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이와 에스카토이가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찾기 위해 몇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가치와 개념입니다. 예전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 ‘호혜(reciprocity)’의 가치입니다. 호혜란 부족 사회에서 행해지는 물물교환을 배경으로 생긴 것이라 했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경제적인 혜택(favor)을 주었을 때 가난한 자들은 그에게 영예(honor)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호혜는 행해졌습니다. 본문에서는 포도원 주인이 찾아간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toiler)였습니다. 당시에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 벌이 일이라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일을 주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주인의 행위는 매우 자비가 넘치는 행위였던 거죠. 이 주인의 행위에 대한 일꾼들의 반응은 그에게 감사하고 영예를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주인에게 투덜거렸다는 것은 선을 넘는 몰상식한 행위였습니다.

두번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모티브는 포도원 주인의 계산법입니다. 이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는 너무 다르고 이상합니다.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고 먼저 온 사람이 더 많이 받는 세상의 계산법이 완전히 무시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법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2 절과 13 절에 쓰인 ‘합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쉽포네오(sympono)’인데 ‘함께’라는 뜻의 ‘쑤(syn)’와 ‘소리(voice)’라는 뜻의 ‘포네(phone)’가 합쳐진 말입니다. 주인의 계산법은 약속한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주인의 뜻에 따라 결정된 것입니다. 이 계산법을 통해 우리는

‘언약(covenant)관계’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갖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적인 신실함을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에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언약관계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적으로 신실하게 행하지 못할 때 나중 된 사람들에 의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언약관계 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관계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깊은 이해를 위해 15 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후하다는 말은 ‘선하다, 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가또스 (agathos)’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이 베푸는 은혜와 favor 를 말합니다. 먼저 된 자들의 마음에는 주인이 후한 것이 걸림돌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나중 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해주냐는 겁니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데 왜 잘 해주냐는 거죠. 이런 프로토이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오?” 헬라어 성경에서는 “너의 눈이 아픈 거(hurtful) 아닌가? 너의 눈이 악하구나(evil).”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제대로 된 눈이 있다면 주인의 마음을 읽을텐데, 그것을 못 읽어 내고 있으니 눈이 악하다는 겁니다. 주인은 자신의 선함에 반하는 프로토이들의 무례함이 불편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주인의 마음에 향해 있지 않고 온통 자기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불편한 포도원**이 되어 버렸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다른 이들이 얼마 받았는지에 관심을 끄고 자기가 받아야 할 돈만 받았다면 불평이란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4.

이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 나라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그의 사정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후하고 너그럽고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의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자들을 향해 안타까워 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아고라에서 빈둥빈둥 서 있으면서 신세 한탄만 하는 이들을 안타까이 여겨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너그러운(generous)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늘 나라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그 나라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태초에 만들어진 포도원이었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에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아고라를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소외되고 난처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 그리고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그 언약은 주인의 뜻에 의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 은혜의 언약 관계에서 소외될 수도 있었던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미 나의 구원은 흔들림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질 때에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쏟는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구원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우월감과 종교적인 실천에서 오는 비교의식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컨택되기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나는 무엇이 잘 나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나는 다른 이들보다 무엇이 뛰어나서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결눈질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포도원 바깥에서 신음하고 괴로워 하는 이들을 향해 눈을 돌리십시오. 오늘 본문은 먼저 되고 첫째 된 우리 프로토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너그러우 후한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그 마음을 나도 갖기를 갈망하십시오. 온통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얼마인지에만 마음이 쏠려 있던 먼저 된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를 받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할만큼 이미 주셨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비교 암, 염려 독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비교는 우리 내면에 암과 같은 것이고 염려는 독과 같은 것이라는 뜻이죠. 남의 인생과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누가 연봉이 얼마고, 어떤 차를 타고, 몇 스퀘어피트의 집에 살고,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 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보다 앞서가는 이들과 나를 비교하면 불행해 집니다. 오히려 나보다 뒤쳐져 있는 이들, 나보다 나중 된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하늘 나라는 그렇습니다. 먼저 된 이들이 아니라 나중 된 이들을 돌보면서 행복해지는 나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먼저 된 이들이 아니라 나중 된 이들에게 온통 쏟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5.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한국에서 매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작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염영숙 여사는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로 은퇴를 한 70 대 초반의 노파입니다. 그녀는 동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는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소설의 전반부에 그녀는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 자신의 지갑과 중요한 물품이 들어 있는 파우치를 분실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02 로 시작되는 서울 지역번호의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말을 더듬는 수상한 상대로부터 염영숙씨냐는 질문을 받게 되고 그가 서울역에서 자신의 파우치를 습득한 것을 알게 됩니다. 독고(Dokgo)라는 50 대 초반의 곰처럼 큰 체구의 노숙자를 통해 지갑을 되찾게 된 영숙씨는 그에게 보답하고 싶어합니다. 배고픈 그를 위해 청파동에 운영하는 자신의 작은 편의점으로 그를 데리고 가 도시락세트를 먹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배고프면 와서 도시락을 먹으라고 호의를 베풀습니다. 이야기는 흘러 흘러 독고라는 남자가 영숙씨의 편의점 야간 알바로 취업하게 됩니다. 이후에 독고씨를 거둬들인 영숙씨의 호의가 어떻게 나비효과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약간 스포일러 같아 조심스럽긴 하지만 독고는 실은 압구정역에서 피나 큰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담당하던 페이 닥터였습니다. 의사의 삶도 망가지면 노숙자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소설에서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성상 의사분들이 많이 있기에 전직의사로서 독고의 행동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충격적인 일로 인해 알콜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억들을 몽땅 잃어버리죠. 편의점 알바를 통해 그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드나드는 많은 이들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죠. 그의 선행을 통해 그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았던 영숙의 호의에서 시작된 나비효과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사회에서 아웃사이드로 몰린 이들이 이 불편한 편의점을 통해 새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큰 감동을 줍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며 염영숙 집사님이 마치 포도원 주인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교사 연금만으로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편의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 일자리에 기대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매출이 적자인 편의점을 굳이 끌고 온 것이었죠. 그러나 그 불편한 편의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독고는 또 다른 포도원 주인이 되어 편의점을 들락날락하는 소외된 인생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실재로 독고의 관심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에 답을 찾게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된다는 따뜻한 소설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불편한 편의점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희망을 잃고 낙락으로 떨어져 가는 이들에게 교회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아직 그대들의 인생은 살만하고 가치 있다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이 오후 세 시나, 다섯 시라도 된 것처럼 '다 끝났구나!'라고 포기해버린 이들에게 아직 포도원 문은 열려 있고 희망은 있다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다하나 교회는 불편한 편의점 처럼 없는 것이 많습니다. 교육부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조직도 영성합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은 불편한 편의점 같을지라도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회에서 뒷처져 힘겨워 하는 이들이 누군지 살피며 그들을 따뜻하게 돌봐주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수난이 시작되기 직전 어떤 이들에게는 좀 불편한 포도원 비유를 드시며 그가 걸어갈 길을 미리 제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나중 된 이들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